

2015 / 11 / 09 (MON)

인터넷 / 소프트웨어 / IT서비스 이경일 6099-8505 shinjohyub@barofn.com

업종별 Comment

전일 국내 인터넷/SW 섹터는 혼조세. 美 금리인상 가능성 재부각되며 투심 위축 2일째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 지속되며 수급 부담.

인터넷과 소프트웨어는 약보합세를 나타낸 가운데 IT서비스 업종은 1%대 상승.

수급측면에서는 기관의 매수세로 지트리비엔티, 넥슨지티, 코나아이 강세. 반면 동반 매도세가 나타난 아프리카TV 약세.

종목별로는 부진한 3Q 실적을 발표한 삼성SDS가 약세를 지속하며 2.1% 하락 마감.

국내 인터넷/소프트웨어 Sector

Index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KRX IT	1,302.27	-1.0%	-12.8%	-692 억	-569 억
(코) 인터넷	19,884.85	-0.5%	4.3%	-14 억	48 억
(코) IT S/W&SVC	2,183.30	-0.5%	9.2%	-19 억	53 억
(코) 소프트웨어	307.60	-1.3%	25.4%	-20 억	-3 억

해외 Internet/Software Sector

Index	close	1D	YTD
MSCI IT	155.01	0.2%	5.5%
MSCI Internet	196.46	-0.2%	28.6%
MSCI IT Services	125.82	0.0%	6.9%
MSCI Software	183.36	0.4%	12.1%

인터넷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NAVER	630,000	0.2%	-11.5%	87 억	-64 억
카카오	119,000	-1.1%	-3.7%	-10 억	47 억
한국사이버결제	28,850	-3.5%	8.1%	10 억	-7 억
KG이니시스	17,050	-2.0%	-4.7%	-1 억	-5 억
KG모빌리언스	14,700	-1.0%	1.0%	1 억	0 억
사람인에이치알	22,650	-4.0%	102.2%	1 억	-1 억
KTH	8,770	3.9%	14.6%	0 억	0 억
아프리카TV	25,050	-3.5%	-6.4%	-13 억	-3 억
SK컴즈	7,710	-2.9%	15.9%	-2 억	0 억
KT뮤직	4,940	-1.1%	-8.3%	-1 억	0 억
다날	9,950	1.3%	22.8%	2 억	-
에스24	10,450	0.0%	49.9%	1 억	0 억

Internet	close	1D	YTD
Google	761.60	0.1%	43.5%
Facebook	107.09	-1.5%	37.3%
Tencent	154.50	1.4%	37.3%
Baidu	200.30	0.7%	-12.1%
Yahoo	34.20	-2.6%	-32.3%
LinkedIn	250.64	0.4%	9.1%
Twitter	28.28	-1.3%	-21.2%
Weibo	17.81	0.8%	25.1%
SINA	51.59	0.7%	37.9%

IT서비스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에스디에스	258,000	1.6%	-12.1%	-58 억	76 억
SK	261,000	1.2%	22.2%	-45 억	-19 억
다우기술	23,400	-1.9%	95.8%	2 억	3 억
포스코 ICT	4,965	0.4%	-6.3%	0 억	0 억
신세계 I&C	115,500	0.0%	3.1%	0 억	0 억
동부	6,090	-1.8%	142.6%	0 억	-

IT Services	close	1D	YTD
IBM	138.25	-1.2%	-13.8%
TCS	2,505.75	0.9%	-2.1%
Accenture	106.00	-0.1%	18.7%
HP	14.01	-0.3%	-65.1%
Infosys	1,138.30	1.4%	15.4%
Wipro	569.95	-0.2%	2.7%
NTT Data	5,880	1.0%	30.2%
Fujitsu	583.20	1.0%	-9.5%
CSC	67.75	1.1%	7.5%

외국인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NAVER	87 억	삼성에스디에	-58 억
컴투스	27 억	SK	-45 억
엔씨소프트	22 억	위메이드	-13 억
한국사이버결제	10 억	아프리카TV	-13 억
선데이토즈	5 억	카카오	-10 억
인피니트헬스	5 억	유비케어	-7 억
비트컴퓨터	5 억	웹젠	-6 억
한글과컴퓨터	5 억	코나아이	-5 억
대아티아이	3 억	한국전자인증	-5 억
조이시티	3 억	이니텍	-4 억
NHN엔터	3 억	넥슨지티	-4 억
다우기술	2 억	보타바이오	-4 억
다날	2 억	한국정보인증	-3 억
네오위즈게임	2 억	더존비즈온	-3 억
오픈베이스	2 억	SK컴즈	-2 억

게임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엔씨소프트	212,500	0.2%	16.8%	22 억	33 억
EA	120,300	4.5%	-0.2%	27 억	12 억
NHN엔터테인먼트	58,400	0.0%	-31.0%	3 억	22 억
웹젠	31,450	-2.0%	8.3%	-6 억	-1 억
위메이드	41,050	-7.4%	8.6%	-13 억	-3 억
선데이토즈	13,650	1.1%	-20.6%	5 억	0 억
액토즈소프트	39,000	0.6%	16.4%	-2 억	-3 억
게임빌	82,700	5.1%	-31.5%	1 억	3 억
네오위즈게임즈	18,600	0.8%	-18.2%	2 억	5 억
넥슨지티	15,750	7.9%	23.5%	-4 억	8 억
데브시스템즈	28,100	1.3%	-41.2%	1 억	0 억
조이시티	26,750	-2.0%	32.4%	3 억	-2 억
파티게임즈	20,550	-1.7%	-21.1%	1 억	-6 억
조이맥스	18,700	-1.3%	-31.5%	1 억	0 억
한빛소프트	7,500	-1.3%	29.5%	0 억	-
와이디온라인	7,010	-5.8%	51.7%	1 억	-1 억

Games	close	1D	YTD
Nintendo	20,025	0.5%	58.9%
EA	72.38	-2.3%	53.9%
Blizzard	35.00	-6.3%	73.7%
NEXON	1,693	1.0%	50.5%
NAMCO	2,772	-8.8%	8.1%
King	17.81	-0.2%	16.0%
Konami	2,847	0.6%	28.2%
Square Enix	3,175	-3.2%	26.6%
GungHo	399	2.6%	-9.5%
DeNA	1,911	-1.6%	32.2%
Sega	1,253	1.0%	-19.5%
Take-Two	34.20	3.5%	22.0%
Zynga	2.57	-0.4%	-3.4%
Ubisoft	28.04	1.0%	84.8%
Gree	574	-0.9%	-20.7%
Changyou	21.39	0.8%	-21.8%

기관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삼성에스디에	76 억	NAVER	-64 억
카카오	47 억	SK	-19 억
엔씨소프트	33 억	한국사이버결제	-7 억
NHN엔터	22 억	파티게임즈	-6 억
코나아이	21 억	KG이니시스	-5 억
컴투스	12 억	한글과컴퓨터	-4 억
넥슨지티	8 억	위메이드	-3 억
지트리비엔티	5 억	아프리카TV	-3 억
더존비즈온	5 억	액토즈소프트	-3 억
네오위즈게임	5 억	안랩	-2 억
한국정보인증	3 억	조이시티	-2 억
다우기술	3 억	아시아경제	-2 억
게임빌	3 억	MDS테크	-2 억
이상네트웍스	2 억	유비벨룩스	-2 억
골프존	1 억	웹젠	-1 억

소프트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코나아이	39,050	3.0%	15.9%	-5 억	21 억
더존비즈온	21,600	-1.1%	132.3%	-3 억	5 억
한글과컴퓨터	20,750	0.2%	2.7%	5 억	-4 억
골프존	95,600	-1.1%	278.6%	0 억	1 억
안랩	42,000	-0.6%	16.7%	0 억	-2 억
한국정보인증	13,100	-5.8%	277.0%	-3 억	3 억
슈프리카	19,800	0.0%	-22.2%	-1 억	0 억
갤럭시아컴즈	6,000	-2.8%	121.4%	0 억	0 억
지트리비엔티	12,550	9.6%	263.8%	-2 억	5 억
MDS테크	23,600	-1.0%	14.0%	-1 억	-2 억
오상자이엘	10,850	-1.4%	-18.4%	0 억	-
인피니트헬스케어	10,800	2.4%	49.2%	5 억	-
케이사인	3,160	-2.2%	28.5%	-1 억	0 억

Software	close	1D	YTD
Microsoft	54.92	1.0%	18.2%
Oracle	40.62	0.7%	-9.7%
SAP	78.79	-1.5%	13.1%
EMC	25.95	-0.3%	-12.7%
Salesforce	79.41	0.9%	33.9%
Adobe	90.69	0.2%	24.7%
Vmware	59.49	0.7%	-27.9%
Intuit	98.28	0.5%	6.6%
Syantec	20.57	-1.5%	-19.8%
CA	27.40	-0.1%	-10.0%
Citrix	82.02	-0.1%	28.6%
Autodesk	63.88	0.6%	6.4%
Synopsys	51.53	1.4%	18.5%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아프리카TV	-3.5%	최근이슈

아프리카TV 이번엔 '불법 先物투자 통로' 의혹

한국의 대표적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TV'가 음란(淫亂), 도박 논란에 이어 불법 금융 거래의 루트로까지 활용되고 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06년 서비스를 시작한 아프리카TV는 회원 수 1200만명을 넘어섰고 하루 접속자는 350만명을 넘는다. 아프리카 TV의 인기 BJ들은 고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이 선정적 내용이나 장면을 내보내고 불법 도박 등을 홍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개인 방송의 불법도박 홍보와 선정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특별단속에 나서기도 하지만, 수천개가 넘는 인터넷 개인 방송 중에서 방통위의 제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수십건에 불과하다. 인터넷 방송 운영업체는 시청자가 인기 BJ에게 현금 아이템을 선물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성폭행 장면을 흥내 내거나 아동학대성 방송을 한 BJ에 대해 방송 정지 조치를 했다가도 얼마 안 가 '광복절 특사(特赦)' 이벤트 명목을 붙여 방송 정지를 풀어주는 등 불법을 방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았다.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NAVER	0.2%	최근이슈

'N드라이브→네이버 클라우드', 똑똑해진 초연결 정조준

네이버가 클라우드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카카오가 포털 다음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나선 것과 정반대 행보다. 여기에는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스마트 기기뿐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N드라이브'를 '네이버 클라우드'로 개편했다. N드라이브는 PC와 스마트 기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다. 아이클라우드, 드롭박스, 유클라우드와 같이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핵심은 사진이다. 귀찮은 사진 정리를 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 알아서 정리해준다. 과거에 촬영했던 사진을 회상할 수 있도록 해주며 정리된 사진을 손쉽게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에 암호 설정으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앱에서 유료 사용자는 10GB, 일반 사용자는 4GB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사진을 보고 싶은 사용자를 URL를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초대할 수 있다.

현재 네이버 클라우드는 PC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 기기만 지원된다. 아이폰 앱은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르면 연내에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음 클라우드가 올해까지만 운영된다는 점에서 네이버 클라우드의 경쟁 서비스는 사실상 '구글 포토'가 됐다. 다음 클라우드는 7월 31일 이후에는 백업은 물론 파일 다운로드 기능을 제외한 모든 기능(PC싱크, 모바일 앱 포함)까지 제공이 중단됐다. 12월 31일까지는 클라우드에 업로드 한 폴더와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기능만 이용할 수 있다.

구글 포토는 지난 5월 열린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 '구글I/O 2015'에서 공개된 이후 사용자가 급속히 늘고 있다. 수많은 사진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으며 고품질 콘텐츠까지 저장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은 1600만 화소, 동영상은 풀HD까지 유지된다. 사람, 장소, 관심 등으로 콘텐츠를 구별하며 다른 사람과의 공유도 간편하게 이뤄진다. 무엇보다 '무제한 공짜'라는 점에서 압도적이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전략은 결국 구글 포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기기나 운영체제(OS)의 구분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문제는 모든 사물을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 가운데 사진이라는 콘텐츠는 기기에 관계없이 가장 폭넓은 저변과 사용자를 가지고 있다. 사진만 잘 분석해도 전 세계 사용자의 생활패턴에 알맞은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검색과 광고, 분석을 통해 수익모델을 극대화한다는 것에서 일맥상통한다.

업계에서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적어도 국내에서 탄탄한 입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을 제외한 특별한 경쟁자를 찾기 어렵고 무엇보다 현지화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만큼 장기집권이 유리한 입장이다.

누명 벗은 '라인', 타이머챗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

글로벌 메신저 라인의 '타이머챗' 기능이 잇힐 권리를 주제로 한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에서 비침해를 인정한 1심 판결이 확정되며 최종 승소했다. 지난 2014년 8월 처음으로 제기된 특허침해소송에서 서울남부중앙지법은 "타이머챗의 서비스가 해당 특허 청구항의 구성을 하나도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5년 11월 5일 진행된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원고는 타이머챗 기능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음을 인정하며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소송이 제기된 타이머챗은 메시지를 발송할 때 이용자가 사전에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고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당 메시지가 삭제되는 기능이다. 원고 측은 디지털 데이터에 소멸 시점을 지정하면 해당 시점이 만료된 이후 데이터가 사라지도록 하는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 해왔다.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 특허는 원고 측이 주장한 데이터 소멸 방식 전체를 포괄하는 특허가 아닌, 데이터 소멸 시점까지의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 방식, 소멸되는 형태 등을 구체화하여 특허가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허의 출원 이전에도 이미 스냅챗, 마이피플, 돈톡 등 많은 서비스에도 메시지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가 삭제되는 개념에 해당 특허의 권리가 포괄적으로 미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게임 Game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넥슨지티	7.9%	추가급등

News & Issue

넥슨지티, 신작 게임 흥행에 7% 급등

넥슨지티 주가가 모바일 게임 신작 '슈퍼판타지워' 흥행 소식에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날 글로벌마켓에 출시된 신작 게임 '슈퍼판타지워(Fantasy War Tactics)'이 흥행 조짐을 보이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슈퍼판타지워는 지난 5일 기준 애플 앱스토어 무료게임 인기순위 1위, 게임매출 12위에 랭크됐다. 앱스토어 전체 인기순위는 3위, 전체매출에선 17위에 올랐다.

Region	종목	1D	Category
글로벌	Industry		최근이슈

News & Issue

블리자드의 킹 인수로 게임 판 들썩

미국 액티비전블리자드가 '캔디크러쉬사가'로 유명한 영국 킹(king.com)을 59억달러(약 6조7300억원)에 인수했다. 인수금액은 국내를 대표하는 게임 기업인 엔씨소프트와 컴투스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약 5000억원이 많다. 말 그대로 '빅딜'이다.

액티비전블리자드와 킹은 서구권을 대표하는 게임 기업들이다. 올해 상반기 게임 상장사 매출 순위에서 각각 전 세계 5위와 10위에 오른 바 있다. 액티비전블리자드는 비디오게임(콘솔)과 PC게임 시절부터 업계 강자이고 킹은 세계 최고 모바일게임 기업 중 하나다. 두 회사의 연합전선 구축에 업계가 주목하는 이유다. 향후 플랫폼을 넘나드는 게임 IP의 활용이 예상된다.

그런데 두 회사가 뭉쳐어도 전 세계 게임기업 2위다. 상반기 매출을 합쳐도 중국 텐센트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중국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내 게임업계가 위기를 거론할 때면 '중국'이 빠지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국외에선 예상을 뛰어넘는 빅딜이 이어지는데 국내는 현실 인식이 뒤쳐져 있어 대단히 아쉬운 감이 있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위기의 게임산업, 대안은 있는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산학계 인사들이 국내 게임산업의 '위기'를 주장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일한 현실 인식을 드러냈다. 지금의 위기가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시장이 재편되고 인력이 재배치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여러 인사들의 질타에 가까운 질문에 이어지기도 했다.

국내 게임업체들도 목소리만 높여선 안 될 것이다. '쉬운 길'로 가려했던 업계도 제 잘못이 분명히 있다. 지금은 중국산 게임에 잠식당한 웹게임 시장이 대표적 예다. 모바일게임 시장도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다가 웹게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중국과 동남아엔 텐센트라는 굴지의 회사가 버티는 가운데 이제 서구권 시장을 꼭 잡고 있는 액티비전블리자드와 킹까지 뭉쳤다. 이번 빅딜은 글로벌 진출을 꾀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업계도 정부도 그리고 국회도 진짜 위기의식을 느낄 때다.

소프트웨어 Software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인피니트헬스케어	2.4%	최근이슈

News & Issue

인피니트헬스케어, 'PACS' 선두 업체

인피니트헬스케어가 의료영상 전송장치(PACS) 선두 업체로 주목받고 있다.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종합·대형병원 등에 납품하는 의료영상정보 솔루션을 개발하고 PACS를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전문업체로, 이 부문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997년 의료기기업체 메디슨에서 분사한 업체로 삼성이 메디슨을 인수한 이후 삼성 헬스케어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지난달 30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소프트웨어 컴퓨팅산업 원천기술개발사업에 관한 국책과제에 선정됐다고 공시했다. 총 과제 사업비는 53억3400만원이며 수행기간은 2017년 8월31일까지다.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1월 9일 현재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11월 9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11월 9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